

2/28(월) 신명기 32-34장 사명의 구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기 직전까지 지도자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출애굽, 광야를 회고하며 <하나님만 섬기라> 당부했습니다(1-11장).

언약과 규례, 그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소상히 전달하고(5장, 12-26장),

가나안 진입과 더불어 계약(언약)을 간직하도록 안내합니다(27장).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복과 저주를 반복하여 전하고(6-9장, 28-30장 외),

이제는 이를 <노래>로 만들어 기억하도록 가르칩니다(31-32장).

<모세의 노래>에도 간곡한 당부가 가득합니다.

아쉽고 안타깝고 거듭 당부해도 여전히 모자라지만,

모세에게 허락된 사명의 구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지도자가 감당할 뜻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 서운했을까요?

자기 몸처럼 살았던 백성들, 자손들 걱정이 앞섰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모세의 눈에 모두 담게 하셨습니다(34:41-4).

‘본다’는 것은 <부동산의 공식적인 법적 양도 과정>입니다. *BST, 신명기

조상 때부터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하나님은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돋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33:29).

가정과 자녀, 일터와 사역으로 인해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❶ 허락하신 사명의 구간 이상을 감당하려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❷ 하나님의 <그들>을 위해 일하시며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까?